

그것이 알고싶다 What is the 원산지관리사?

김설룡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원



Q 원산지관리사는 국가공인자격증인가요?

네, 원산지관리사는 2010년 12월에 민간자격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2012년 국가공인 심사를 통과하여 2013년부터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승격하였습니다. 그만큼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격증입니다.

Q 원산지관리사는 주로 기업의 어느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인가요?

구매 및 해외영업 전략 부서, 생산경영 전략 부서 등에서 필요로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관리와 ERP 원산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리, 가격 전략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Q 원산지관리사는 주로 어느 산업에서 활동할 수 있나요? (무역리포트 2014년 7월호 참조)

수출입과 연관된 산업이라면 어디든지 진출이 용이합니다. 실제로 원산지관리사 취득자는 대기업과 대기업에 부품이나 중간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등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Q 원산지관리사를 실제로 기업에서 우대하고 있나요?

네, 실제로 LS 엠트론, 넥센, 이랜드 월드 등의 유명 기업에서 직무에 따라 원산지관리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Q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해 보통 어느 정도의 학습 기간이 필요한가요?

처음 학습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2~3개월 정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합격 소요 기간을 더욱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Q 원산지관리사는 주로 어떤 방식을 통해 학습을 하나요?

전공이나 직업 등 유관한 경험이나 지식을 쌓는 분들은 교재를 통한 독학을 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학습을 접하게 되시는 분들의 경우, 원산지관리사 과목들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발간하는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온라인 강의를 통해 보다 쉬운 합격의 길로 다가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www.ftaedu.or.kr에 접속하셔서 FTA 원산지 아카데미로 오시면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관련 교육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Q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1년에 3번 시험 일정이 있으며 보통 5월, 8월, 11월 이렇게 3번에 걸쳐 본 자격증 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원산지관리사 합격률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진행한 원산지관리사 합격률은 12회 31%, 13회 16%, 14회 10%, 15회 38%였습니다.

Q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실무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원산지관리사는 정규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기업의 원산지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반면, 원산지실무사는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기업의 원산지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Q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1급을 보유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원산지관리사 학습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준비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혹시 두 개의 자격증과 원산지관리사의 학습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수출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군요. 그 열정으로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자격증 경우에는 무역 실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역량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사는 FTA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역량을 평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FTA 협정에 근거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준 및 조항, 품목분류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 통관실무에서 관세법 부분은 국제무역사나 원산지관리사 모두 공통된 부분입니다. 학습에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 FTA의 기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관리사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사 합격 후기

- 원산지관리사 합격자(12회, 15회)



윤원채(15회 합격자)

1. 자기소개 및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FTA 활용연구팀 인턴으로 근무 중인 윤원채라고 합니다. 담당하는 일은 FTA 관련 연구 업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TPP 관련하여 TPP 가입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HS code를 정리하고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발간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교재에 필요한 최근 타결한 FTA 협정문 자료를 수집하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예시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어떤 경로로 취득하게 되었나요?

사실 관세사 시험을 약 2년 이상 준비했습니다. 관세사 시험 과목 가운데에는 관세법 이라든지, FTA 이행 특례법, HS 품목분류 등의 과목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관리사 과 목들에 대한 거리감은 적었습니다. 관세사 시험 과목들을 강의해주는 강사분들이 원산지관리사를 소개해 주신 것이 원산지관리사를 알게된 계기였습니다. 소개와 더 붙어 “한-EU FTA에서 인증수출자의 경우, 6000유로 이상 수출을 할 경우, 원산지 증 명서(C/O)의 자율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 인증수출자의 필요 요건 중 하나인 원산지 전담관리자에 원산지관리사가 근무한다면, 해당 기업의 경쟁 력이 향상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원산지관리사가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되면서 관세사 대비 학원에서도 원산지관리사에 대한 중요성 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취업에 뛰어들면서 그 해 8 월, 원산지관리사 제15회 시험에 응시를 하여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3.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 취업에 도움(또는 업무에 도움)이 된 점을 작 성해 주세요.

인턴 업무에 있어서 HS code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였는데,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원님들의 업무 지원 시 원산지관리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타결된 한-콜롬비아 FTA, 한-중국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의 협정문 자료를 조사할 때 본 자격증 준비 시 습득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협정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작업 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보유로 인해 면접 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4. 자격증 취득 후 도움 받은 부분에 대하여 더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 롭게 작성해주세요.

아마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고자 준비하는 학생, 취업 준비생들이나 직장인들의 경 우,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개인마다 학습 습관이나 본 자격증 과 관련된 기본 지식의 양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과목별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원산지관리사 공부 방법

학습 기간: 약 1달

- 크게 3개로 나누어서 과목별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출입 통관 실무, FTA 협정 및 법령 (70점 이상 목표로 하기)

- 이 두 과목을 한 묶음으로 둔 이유는 공부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두 과목은 다른 두 과목에 비해 개인적으로 학습의 어려움이 훨씬 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관 부분의 경우에는 수출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학습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령, 수입 통관의 과정인 “수입신고 → 서면심사 및 현품 검사 → 수입신고 수리”를 염두에 두고 각각의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파생시키며 학습하시면 빠른 습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을 종종 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예전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 시험장에서 개정된 내용의 출제로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최신 교재로 학습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품목 분류 실무 (50점 이상 목표로 하기)

- 처음 이 시험을 접하는 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 과목일 것입니다. 생소한 과목인 만큼 어떻게 처음부터 학습을 해야 할지 난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학습해나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목일수록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상대적으로 어디가 덜 중요한지 경중을 잘 따지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제84류, 제85류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를 분석했을 때는 전체 출제 빈도의 약 40% 정도였던 걸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기출문제집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www.ftaedu.or.kr)

이렇게 빈도가 높은 류 부분은 주 규정이나 호의 용어들을 꼼꼼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 규정에도 언급된 호의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암기

를 동반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가령, 제85류 주3에는 “가정용 전기기기”라는 호의 용어를 설명하며, 당해 호에 해당하는 예시 물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호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완벽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50류~제63류의 섬유, 의류 관련 부분에서는 예시를 통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 접근은 주 규정에 근거하여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주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많은 양을 암기하실 때는 적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할 시 시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자주 보면서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자주 접하게 된다면 객관식이라는 본 시험의 특성상, 시험 당일 어떤 문제를 접하더라도 자신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원산지결정기준 (60점 이상 목표로 하기)

- 이 부분은 관세사를 준비했던 분이나 처음 준비하는 분 모두에게 생소한 과목입니다. 한 번 공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품목분류와 마찬가지로 매일 한 번씩은 보신다는 마음으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FTA 협정마다 협정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반면에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콜롬비아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끼리 비슷한 내용이 있고 EU, EFTA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 아세안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끼리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암기하면 학습이 훨씬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과목 역시 협정 추가 등에 따라 개정 가능성이 있기에 가장 최근 교재로 학습하시는 걸 권유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15원산지관리사교재



2015원산지실무사교재

이소영(12회 합격자)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이행지원팀에서 근무하는 이소영입니다. 현 부서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관세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 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제도)를 활용하려는 업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규정에 의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분야의 업무에 호기심이 생겨 앞서 설명드린 업무를 하고 있는 FTA 이행지원팀으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업무의 특성상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부서에서 근무했지만 FTA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품목분류나, 수출입통관, 원산지 결정기준 등 일반인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원산지관리사’ 교육과목이 낯설지 않았는데도, 막상 ‘원산지 관리사’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는, 한글을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었습니다.

다만, 업무가 ‘원산지관리사’ 자격과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업체담당자에게 원산지 인증수출에 대한 상담을 계속하다 보니, 교육내용이 바로 실무와 접목이 되어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고, ‘원산지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 취득후 업체가 제출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서류를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었고, 담당자와의 업무 상담도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산지관리자 자격 취득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품목분류’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FTA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산지관리사를 통해 공부했던 부분은 업무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접착식테이프 제품을 수출했던 A사가 제3919.10호(접착식테이프 제품)를 제3926.10호(사무용품)로 품목분류를 잘못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한-EU협정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FTA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HS No.	제3919.10호	제3926.10호
한-EU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MC25%	MC 50%
	4단위 세번변경 또는 공장도가격 25% (선택기준)	공장도가격 50%

다시 말해, 해당물품은 세번변경기준(CTH)이나 부가가치기준(MC25%)으로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제3926.10호로 잘못 분류한 탓에 좀 더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인 MC50%를 적용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원산지 관리사를 통해 배운 지식과 FTA업무실무를 통해 경험한 부분을 통해 업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담당자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면 업체 입장에서 더 유리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선택하여 자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FTA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올해 11월 30일에 우리나라 교역량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과의 FTA가 지난 12월 20일 발효했습니다. 대중국과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앞으로 FTA 업무를 잘 알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FTA 전문가로서의 시작을 ‘원산지 관리사’ 자격을 취득을 통해 하신다면,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역환경에서 여러분이 ‘FTA 전문가’로서 우뚝 설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